



#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인다 뉴스레터



- 2018년 9월 제9호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TEL: 033-370-2013 FAX: 033-370-2540 www.ywmuseum.com

## ■ 국립춘천박물관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시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기획 특별전을 8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시한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로, 산스크리트어arhat(아르हत)을 한자로 음역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나한 신앙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645년에 <법주기>를 번역하면서 시작되었다.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2001년 영월 창령사지에서 발굴되자마자 크게 인기를 끌며 국립춘천박물관의 메인 유물이 되었다. 오백나한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어디서 본 듯한 질박하고 친근한 표정이다. 전시는 1부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들>로 현대미술가 김승영 작가의 벽돌 설치 작품으로 오백나한상과 콜라보레이션하여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져 호흡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2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나한의 도상과 복식, 보존과 복원, 재료 등을 전시하여 나한의 숨은 비밀을 풀어내었다. 3부 <현대 삶속의 나한>은 홍석창, 최영식, 이형재, 최종갑 4명의 작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삶 속에서 나한을 표현하였다.



## ■ 박찬갑展 /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국제현대미술관(관장 박찬갑)은 9월 19일 오전 11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조각전을 개최하였다. 전시는 「2018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기획되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우수전시가 지역 유희 전시공간에 전시되도록 보급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찬갑 관장은 “오늘날의 작가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有)에서 무(無)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조형언어를 발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꾸준히 탐구 작업한 신작 80여 점을 전시하였다. 10월 18일까지 전시하며 11월에는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관람은 무료이다.



## ■ 영월곤충박물관장 이대암 <장수하늘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이대암 영월곤충박물관장은 <장수하늘소의 생태와 유전적 다양성 및 복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제218호) 멸종위기종 1급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곤충이다. 이 관장은 2006년부터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원과 공동연구협약을 맺고 우리나라와 같은 종이 살고 있는 우수리스크 자연보호구역의 장수하늘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북한산 장수하늘소 1쌍을 들여와 4년 만에 세계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했다. 현재 삼육리 곤충연구센터에 방문하면 장수하늘소를 인공적으로 증식해 연중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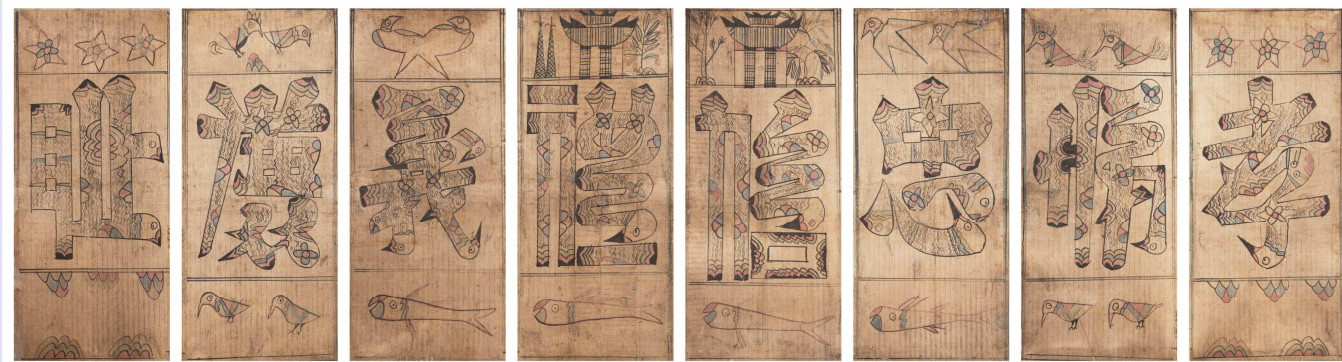


■ 제 13회 <우리그림, 민화 속으로> 민화대축제 4개 전시 동시 개최

조선민화박물관(관장 오석환)은 오는 10월 6일(토) 제13회 <우리그림, 민화 속으로> 민화대축제를 시작으로 4개의 전시를 동시 개최한다.

연말까지 열리는 <2018 전국민화공모전 수상작> 특별전에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도외숙(안산시) '책가도'를 비롯하여 최우수상(강원도지사상) 이미숙(청주시) '백납도 8폭병풍', 김미연(서울시) 공예품 '책탁문방도', 이영희(인천시) '무이이야無以異也' 등이 전시된다.

또한 <민수회 4인 초대전>으로 최남경 작가의 장생도 등 30여점의 현대민화를 전시한다. 그리고 <인륜(人倫)을 이야기하다-문자도 특별전>에서는 사람이 지녀야 할 여덟 가지 덕목을 표현한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 등을 전시한다. 제주도문자도 등 지역별 특성을 표현한 다양한 문자도 10여점을 새로 공개한다.



<2018 전국초등학생 민화공모전> 에서 대상 이지수(울진군 울진초등학교 5) 'My secret room' 등 50 여점의 초등학생 수상작도 함께 전시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전통의 맥을 잇는 계기를 보여 줄 것이다. 오석환 관장은 "전국 민화작가와 일반 참가자가 민화를 주제로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민화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오픈식은 10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 고명진展 / 나의 예술, 나의 인생 The Artist in Gangwon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은 9월 18일 오후 4시 춘천 사북면에 위치한 이상원 미술관에서 <나의 예술, 나의 인생\_The Record As Love 기록하는 마음>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원로 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명진 관장은 영월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 작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삶 속에 파고드는 예술문화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이다.



■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세네갈의 날' 축제와 특별전 개최

아프리카미술박물관(관장 조명행)은 지난 8일 <세네갈의 날> 축제와 특별전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Mamadou Gueye Faye 세네갈 대사, 한·세네갈의원친선협회장 이완영, 김태영 부군수, 전주헌 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별전은 아프리카 개별국가 문화교류와 친선도모를 위한 행사로 기획됐으며 아프리카 공예품 바자회, 음악공연, 세네갈 음식 시식 및 전통 의상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주관은 아프리카미술박물관과 주한세네갈대사관이며 후원은 영월군, 한·아프리카재단, 한·아프리카협회, 한·세네갈의원친선협회, 한·세네갈문화상공협회, 재인천세네갈 명예영사관이다.

